

# '학술과 교양의 다리를 놓는다'

## 국내 9개 대학출판부의 출판 활동

학문의 기초와 문화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대학출판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학교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기획력을 발휘하여 많은 양서를 출간하고 그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전문출판사로 성장하고 있다.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국내 몇몇 대학출판부의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 실문내용 : 귀 대학 출판부의

- ① 출판연혁과 총 간행종수
- ② 대표적인 '시리즈' 혹은 '총서'나 저서
- ③ 대표적인 성공과 실패사례
- ④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 세계적인 작가 망라한 <문학의 이해와 감상> 농축계 전문서 집중 발행으로 학계 주목

#### 건국대 출판부

- ① 창립 33주년을 맞는 출판부는 총 320종의 학술·전문·문학·교양교재 및 교양도서를 발간했으며 250종 정도가 유통되고 있다.
- ② 소비문화에 휩쓸려 명작을 멀리하는 시대에 독자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94년부터 기획·출판하고 있는 <문학의 이해와 감상> 시리즈는 이미 100권을 발행하여 출판부의 확고한 이미지를 심고 있다. 이 시리즈는 전국 47개 대학의 문학전공 교수 및 평론가들이 참여하여 도스토예프스키에서부터 오에 겐자부로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외 작가에 대한 해설을 집약시킨 전집이다. 98년까지 1차 완간 120권을 목표로 세계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장들을 대학 출판위원회에서 엄선하여, 전공 교수와 평론가들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다. '재미 있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일반 독자의 입장을 존중할 것'과 '작가의 생애를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면서 그 작가의 생애와 성장배경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밝힐 것', 그리고 '주요 작품 소개와 문학적 평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보 등을 수록할 것' 등이 편집방침이다.
- ③ 국보 제142호로 지정된 <동국정운> 영인

본을 발행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춰 농축계 전문학술서를 집중 발행, 70~80년대 농축산계의 학문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④ 금년 말까지 완간 예정인 <문학의 이해와 감상> 목록 중에 빠진 작가들을 지속 간행할 예정이다. <한국문헌실화집>(전5권) 기획도 끝나 금년까지 2권이 간행될 예정이며, <영양학시리즈> 전8권도 준비중에 있다. 대학출판의 본질을 견지하면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폭넓은 교양도서 발간 등의 기획출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타교 교재로까지 활용된 도서관학 관련서 기독교 정신 발현한 설교·자료집도 의욕적

#### 계명대 출판부

- ① 지난 69년 설립하고 70년 등록한 출판부는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관련도서, 의학도서, 일반 교양서, 기독교 관련 도서 등을 펴내고 있다.
- ② 대표적인 시리즈로 문헌정보학 관련도서 18종과 의학도서 9종을 꼽을 수 있다. 기독교 관련서 또한 펴내고 있다.
- ③ 80년대 국내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의 잇따른 개설에 따라 출판부에서 간행된 도서관학 관련도서를 지금까지 18종을 발간, 관련 학문에 기여하고 있다. <도서편목법> 등이 타교의 교재로 활용되면서 출판부는 활기를 얻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86년부터 간행한 전문 의학도서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계속 간행하고 있다.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교집과 자료집 및 관련도서를 여러 종을 발간하고, 근래에는 <신·구약 성경의 순례> 2집을 학보와 곁들여 의욕적으로 출판·홍보했지만 독자들의 호응은 낮은 편이었다.
- ④ 문헌정보학 관련도서 및 의학도서를 중

점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학과 전공에서 학부제 다전공 제도로 전환된 현실에 맞게 1학년 필수과목으로 교양총서(총 99종)를 '교양 세미나 운영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출판부에서 간행한다. 교양과정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교양총서 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 본교출신 시인 시집발간, 대학문학 활성화 <시어사전> 이어 <소설어 사전> 발간

#### 고려대 출판부

- ① 지난 56년 설립된 출판부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를 망라하여 총 400여종의 도서를 냈다. 출판부는 대학 전임교원들의 학문연구와 학술도서 간행을 돕기 위해 학술도서간행연구비 지급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학문연구 결실을 도모하고 있다.
- ② 학술연구총서와 인문사회과학총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문고판으로 교양문고와 안암 문고시리즈, 사상총서를 간행하고 있다. 97년부터는 전임교원들 뿐만 아니라 해당 학문분야에서 권위가 인정되는 저명한 교내외 학자를 선정하여 대학생과 일반 독자들을 위한 <안암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 ③ 97년에 발간한 <한국 현대시 시어사전>은 현대시 초기인 최남선부터 90년대 신진 시인의 시까지 우리 현대시에 실제 사용된 시어를 가려 엮은 것으로 우리말이 예술어 수준으로 상승해 나아갈 것을 소망·지향한다. 1만 2천여 단어를 표제어로 선정, 조어·고어·방언·은어·비속어 및 시에서 쓸 만한 낱말이나 상징어들을 가려내어 그 의미를 규정하고 용례를 수록하고 있어 독서사전 및 작문사전의 역할과 함께 상징사전 및 간략한 시문장사전을 겸한다. 또한 90년을 전후하여 등단한 고려대 출신 젊은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연차시집으로 <1997 안암의 젊은 시인들>과 <1998 안암의 젊은 시인들-햇빛 속에 호랑이는 광휘로 가득하다>를 발행하여 대학 문학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 ④ 올해는 <소설어사전> 출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설어사전> 또한 <시어사전>과 함께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그동안 소설을 읽는 재미에 빠져 미

쳐 깨닫지 못하고 스쳤던 부분들, 잘 모르고 넘어갔던 문장·낱말 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작품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 유학자들의 사상 담은 <유학사상 총서> <독일현대회곡선> 기획, 독자층 형성 유도

#### 성균관대 출판부

- ① 한국의 사상, 정신문화분야 도서 발간을 이끌어온 출판부는 지난 75년 설립되어 그동안 310종을 펴냈으며, 현재 168종이 유통되고 있다.
- ② 문학·철학·역사·교양·아동·종교분야를 집중적으로 펴내고 있다. 대표적 시리즈로 사서삼경·수선사회과학신서 등이 있다. 사서삼경은 <대학 중용강설>, <주역강설>, <논어강설>, <맹자강설>, <시경·서경> 등이 있고 수선사회과학은 <커뮤니케이션과 상징 조작>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도서들이 있다.
- ④ 81중에 달하는 유학사상 총서는 건학 6백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것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동양 3국의 저명한 유학자들을 선정하여 생애와 역사적 배경, 사상을 소개·비평한다.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수한 정신문화를 내포한 유학사상을 다룬 기획물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쓴 일반교양서로서 그 포괄범위가 방대하기로 세계최대이다. 독자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독일현대회곡선(자연주의 이후의 독일 드라마) 20작품도 출판하기로 기획했다. 출판을 기피하는 문학장르이지만 문학기계와 연구계의 질적 저변확대를 위하여 출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 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기획을 마련한다. ◆

### 영남 지역의 민족문화 자료연구에 특성화 인문학을 심도 깊게 다룬 연구총서도 발간

#### 영남대 출판부

- ① 지난 75년 발족 이래 23년간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 발간에 꾸준히 힘써왔다. 인문·사회·자연·예체능 등 학문 전반에 걸쳐

총 180종의 도서를 출간했다.

② 민족문화연구소와 협력하여 발간하는 민족문화 관련도서는 특성화된 이미지를 심고 있다. 민족문화 연구총서 21권과 민족문화 자료총서 16권은 우리 정신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연구·계승하기 위한 기획총서이다. 특히 영남지방의 민족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연구 출판하고 있다.

③ 연구총서는 《영남사람과의 형성》(이수진), 《전통도자기의 생산과 수요》(권병탁), 《삼국시대 분구묘 연구》(강인구), 《한국 농경세사의 연구》(김택규) 등이 발간 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자료총서는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사료들을 엮어 펴내고 있다. 경북지방에 흩어진 고문서들을 원본 그대로 활자화한 《경북지방 고문서 집성》, 영남지방에 분산되어 있던 1천5백여종의 문집들을 해제한 《영남문집해제》, 향교와 문중에 보관되어 있던 고문서들을 영인한 《경북향교자료집성》, 28년부터 발행된 경남일보를 영인한 자료집 등이 대표적이다.

인문학의 심도 있는 주제들을 다룬 인문과학연구총서 또한 발간하고 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현대적 의의》(신귀현 외),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연구》(성경호), 《현대사회와 인간소외》(박승위), 《북한설화의 연구》(김화경) 등 11권을 발간했으며, 앞으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④ 올해는 학교 특성을 살리며 학술발전에 기여할 신간도서 20종을 발간하기 위해 작업 중에 있다. 또한 민족문화자료총서인 《단계 김인섭 일기》, 《강화 경관 고려대장경 각성자 자료집》, 《임진록》 등을 기획·편집 중에 있다. ❖

### 《병리학의 역사》 등 의학서적 반응 좋아 독자층 확대할 《세계의 고전》 시도

#### 울산대 출판부

① 지난 81년 설립된 출판부는 그동안 전공 학술 45종, 일반교양 26종, 교양교재 19종(CD포함)을 포함해 총 90종을 펴냈다. 같은 해 한국대학출판부협회에 가입하고 93년에는 전국적인 도서판매망 구축을 위해 한국출판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특별연구

비 제도, 교재개발 지원금, 번역도서 개발 지원금, 기획도서 연구비제도 등을 신설해 우수 저자 확보와 양질의 도서발행을 피하고 있다.

② 총서 중에 대표적인 저서로 의학서적인 《사시학》, 《골절검사와 처방》, 《담석증, 최신 목회정신의학》, 《병리학의 역사》, 《폐렴의 이해》 등이 있고 《환경학의 이해》, 《한국경제 이야기》, 《새로운 시작에의 열망》, 《제로베이스 이론 II》, 《건강과 영양》, 《식품물성학》,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 《적약재 김구용의 문학세계》 등이 있다.

③ 80년대는 주로 교양교재를 간행했으나 91년 이후부터 학술서적을 발간, 의학서적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중국 강소성사회과학연구소가 편찬한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는 총 5권으로 간행될 예정. 현재 3권까지 출판되었으나 판매 실적이 저조해 상당한 재정 손실을 입기도 했다.

④ 기획도서 《세계의 고전》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해설서 시리즈이다. 고등학생 이상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사상편과 문학편으로 나누어 발행할 계획이며 사상편의 약 50여 종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문학편은 영국·미국·중국·일본·프랑스·독일·러시아 등의 유명한 작품을 선정, 해설서 저자를 확보하는 중이다. 기존 도서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평이한 문체로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 여성학·어린이·장애인 등의 분야 집중기획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 해외서도 호평

#### 이화여대 출판부

① 우리나라 대학출판부로서는 최초로 설립(49년 11월)된 이화여대 출판부는 지금까지 530종을 발간했으며, 현재 300여종이 유통되고 있다. 연간 발행 종수는 30여종 내외이며, 채색은 70여종에 이른다. 제작부수 18만부 중에 15만부 정도를 판매하고 있다.

② 창설 30주년 특별기획으로 시작한 이화문고는 현재 75권을 간행했다. 대표적인 저서로 《과학혁명의 구조》, 《음악의 즐거움》, 《논리와 사고》, 《여성학》, 《성장심리학》, 《성

의 사회학》 등이 있다. 내일을 여는 책 시리즈는 이화문고 후속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황제의 새마음》, 《현대음악사》, 《지식의 추구와 수학》 등 16권을 간행했다. 그밖의 기획도서로 여성학·어린이·장애인, 여성·남성심리, 종교문화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기획하여 출간한다.

③ 기획도서 중에 《읽기와 쓰기를 즐기는 어린이로 기르는 방법》, 《유아들의 마음 사로잡기》, 《유아를 위한 정서교육》 등은 꾸준히 팔리고 있다. 94년 무명의 가정주부 장선용씨가 펴낸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은 간행 5년만에 12만부가 팔렸고, 영역본인 《A Korean Mother's Cooking Notes》도 1년간 3천부가 판매되며 해외에서 호응도가 높았다.

④ 기존의 기획도서를 중심으로 발간하며 새로운 아이템 또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장명수씨가 가족·여성·사회 등을 주요 테마로 다룬 여기자 칼럼 2천회분을 묶는 3권의 칼럼집을 9월경 발간할 예정이다. ❖

### 외국어학과 특성 살린 24개 국어사전 발간 실용외국어회화·세계문학 등 총서도 지속

####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① 외국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교양을 함양시키고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문화교류 및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69년 4월에 설립된 출판부는 지금까지 180종의 도서를 간행했다.

② 대학에 개설된 24개 외국어학과와 특성 과 교수진을 바탕으로 《사전류》, 《실용외국어회화》, 《세계문학총서》 등의 시리즈를 발간했다. 사전으로 이탈리아·한국어사전, 터키·한국어사전, 페르시아·한국어사전, 태국·한국어사전 등을 간행했고, 베트남·한국어사전, 아프리카·한국어사전 등을 준비 중이다. 실용외국어회화는 기초에서부터 고급까지 수록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중국어·인도네시아어·폴란드어회화 등을 간행했으며, 체코어·헝가리어회화 등은 제작 중이다. 실용외국어회화는 24개 언어를 망라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지역학 관련 총서는 언어와 함께 세계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전세계 민족의식과 생활방식, 정치경제·사회문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세계문학총서는 세계의 문학 중에 국가별 고전·장편·단편, 최근 대표작 등의 다양한 작품들을 해당학과 교수들이 번역하여 편찬한다. 현재 《머리》, 《검역》, 《착한 성인 엠마누엘》, 《시간과 바람》, 《침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 총 11권을 발간했다.

③ 학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할 수 없는 출판물의 성격 때문에 사전류의 경우 막대한 투자가 따르지만 긍지를 가지고 출판하고 있다. 그 중에 폴란드회화는 (주)대우의 폴란드 자동차회사 설립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문학총서 중에 일부는 스티디 셀러로 자리잡은 적도 있다. 그러나 출판물 대부분의 판매가 부진하고 수명도 짧은 편이다.

④ 출판부는 사전, 실용외국어회화, 세계문학총서, 지역학총서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출간할 계획이다. ❖

### 출판영역 확대와 영업 활성화에 노력 기독교 정신의 건학이념 충실하고자

#### 전주대 출판부

① 지난 85년 설립된 출판부는 총 65종의 도서를 발간했다. 출판영역의 확대를 위해 87년 한국대학출판부협회에 가입하였고 93년에는 국제표준도서 발행자 번호를 부여받았다. 또한 영업 활성화를 위해 96년 한국출판협동조합에 가입했다.

② 《문화총서》가 대표적이며, 임철호 교수가 펴낸 《임진록 이본연구 I~IV》를 대표 저서로 꼽을 수 있다.

③ 문고본을 제작하기 시작하여 《권위와 개인》(이종익),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김성헌) 등 19종의 도서가 호응이 높다.

④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란 건학이념과 기독교학파가 있는 대학으로써 기독교에 관계되는 개성있는 도서를 출판하고자 기획특집을 구상하고 있다. ❖